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27.(수) 즉시
 (지 면) 2026. 5.28.(목) 조간

강남훈 기본사회위 부위원장, '선별적 복지 한계...기본사회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강 부위원장 '대한민국 기본사회 디자인 포럼' 참석 축하
- 기본사회 안착을 위한 실천 전략 제시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은 2026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기본사회 디자인 포럼'에 참석하여 축하를 통해 기본사회 전환의 필요성과 핵심 추진 전략을 밝혔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저성장·초고령사회·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기존의 선별적 복지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의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기본사회 안착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는 ①사회적 공감대 확산, ②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③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은민수 위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

담당 부서	기획운영국 기획총괄과장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902-6910)
		담당자	사무관	이은자 (044-902-6911)



27일 오후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사회 디자인 포럼'에서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본사회위원회 제공)